건강보조식품 DHA 새바람

동원 생산돌입, 미원 추진 … 총수요 80~100톤 달할 듯

DHA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식품공전에 등제되고 기억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원산업, 미원 등이 대규모 생산을 추진 중에 있다.
동원산업은 5월초부터 DHA 오일 대량생산에 성공, 연간 6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원은 정확한 생산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4년말에 대규모 생산에 돌입, 95년 상반기에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국내 수요 규모와 시장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대기업들의 생산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DHA시장을 놓고 수입품과 독점생산기업인 고려합섬을 비롯한 동원산업, 미원의 4파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합섬, 동원산업 등 국내 생산되고 있는 DHA는 참치·정어리 등 등푸른생선에서 추출한 안구나 어유를 이용해서 제조하며, 미원은 미세조류 배양을 통한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93년 DHA의 국내 수요는 50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려합섬과 일본의 대양어업, 하리마화성, 일본수산, 일본유지 등이 공급하고 있다.
가격은 고려합섬의 경우 DHA 27%, EPA 12% 제품이 KG당 8~9만원이며, 수입품이 평균 6~8만원, 동원산업은 5만원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HA 이용 현황을 보면 식품분야에서 참치캔 제조용으로 동원산업 등 4개사, 유가공용으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3개사, 기타 햄·어육 등 첨가용으로 한국냉장 등 4개사가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는 태웅식품, 세모, 풀무원, 광동제약, 태평양 등에서 DHA캡슐을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HA시장은 알로에, 스쿠알렌에 이어 건강보조식품에서 큰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건강식품 방문판매 규제와 경기 둔화, 건강식품기업들의 영세성 등으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건강식품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으로 인한 공급확대와 가격저하, DHA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힘입어 94년에는 80~100톤의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7/4>